

## 최소 편차를 위한 인쇄 - 이미지 크기와 **Frame** 크기와의 관계(I)

---

우리는 흔히 어떤 인쇄 image size가 정해 졌을 때 Frame size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한다. 물론 스크린 인쇄 특성상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크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확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.

여기에서는 스크린 인쇄 시에 발생 할 수 있는 편차에 대한 다른 변수들 특히 tension, tension 편차, 스쿼지 압력, 스쿼지 길이, snap-off 거리 등에 대한 변수를 고정 시키고 적정 frame size에 대한 것을 알아본다.

<1> Image 와 frame(내경) 비율

-8대6의 법칙

~ 스크린 판의 크기가 적어도 100cm 이상 (중대형) 인 경우 경험에 의해 내려오는 법칙(?)이다.

인쇄 편차의 정도 차이나 스크린 size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주먹 구구의 법칙( rule of thumb) 이라고 치부 해 버릴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무시해 버리기는 곤란하다.

## 그림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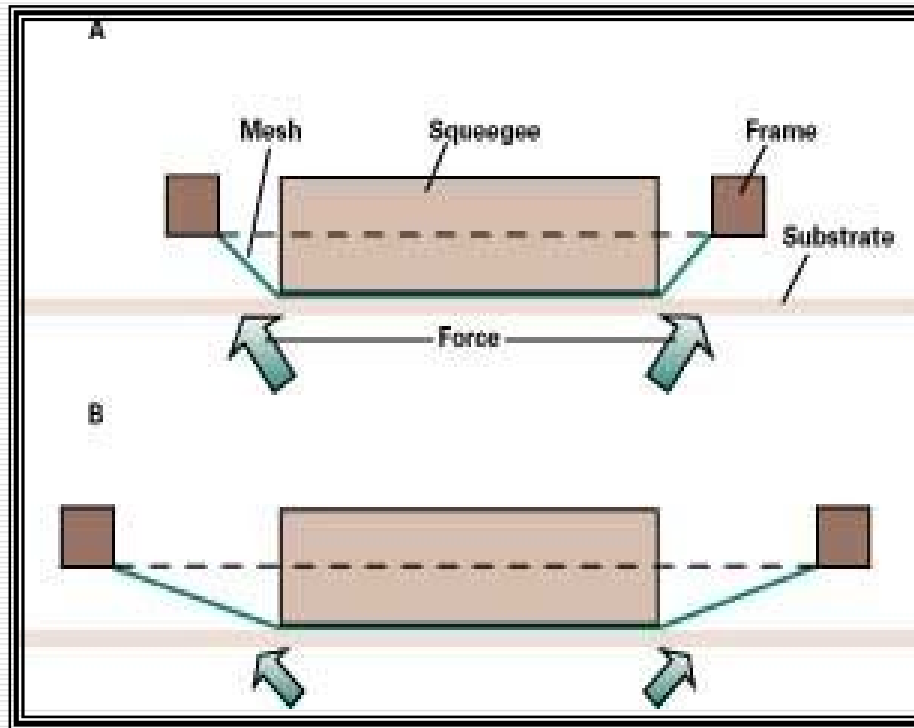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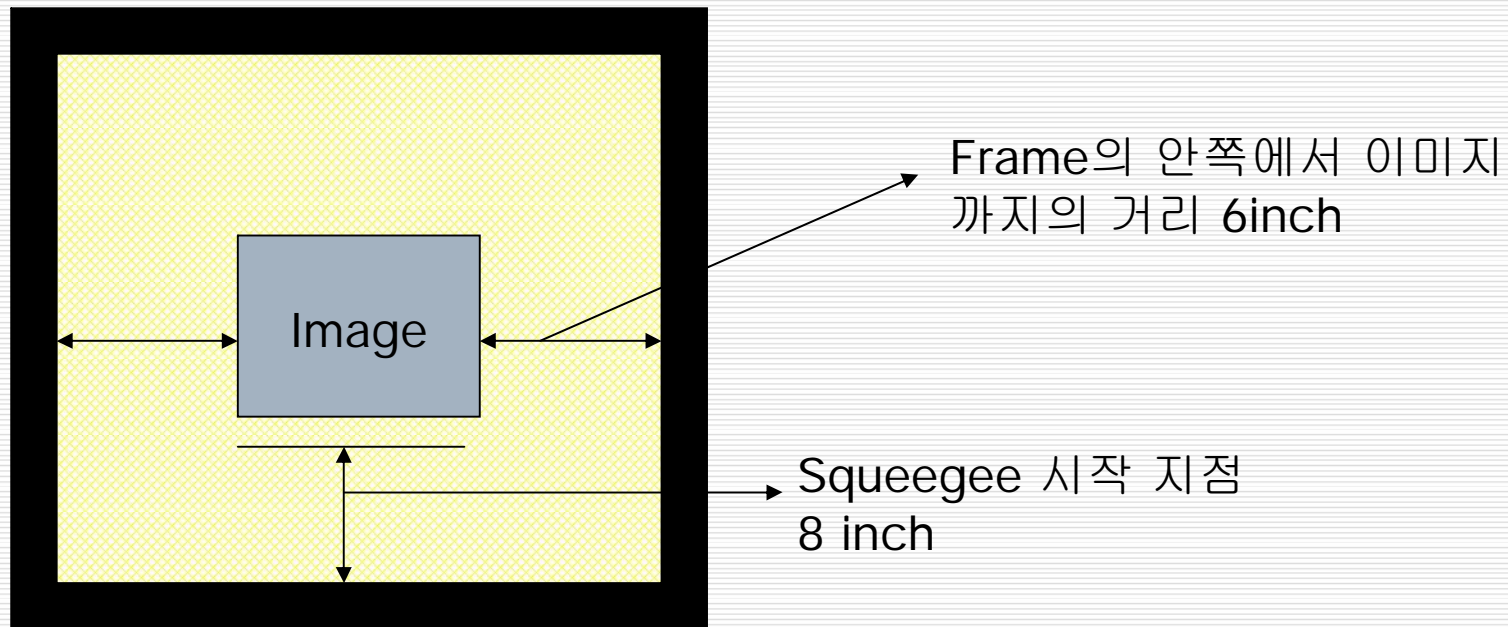


그림 A와 B를 비교하면 mesh에 걸리는 Force가 A의 경우가 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것은 동일 크기의 인쇄 image에 대한 Frame의 크기가 클수록 인쇄 변형이 덜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.

# i8 and 6i rule

---



## 인쇄 정도에 따른 Image 와 Frame 비율

MikeYoung이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정리 할 수 있다.

- PCB등 전자 < 25% 이하 -----①
- Decal, Label등 < 35% 이하 -----②
- Color Display Graphics < 45% 이하 -----③
- 대형 Image 등 일반 < 55~65% 정도 -----④

